



영화 '화이트데이:부서진 결계' 강찬희, 사진제공 | 제이앤씨미디어그룹

스카이캐슬→여신강림→화이트데이 라이징 스타 강찬희·박유나 또 호흡

공포게임 원작 영화 '화이트데이'...내일 제작보고회

화제의 드라마에서 연이어 호흡을 맞춘 두 젊은 연기자가 이제 스크린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그룹 SF9 소속이면서 연기로도 영역을 넓혀온 강찬희와 차근차근 출연작 편수를 늘리며 연기력을 쌓아온 박유나이다. 두 사람이 10월 개봉하는 영화 '화이트데이:부서진 결계'(감독 송운·제작 슬기로운늑대)의 주역으로 나선다.

강찬희와 박유나는 2019년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함께 출연해 처음 인연을 맺었다. 호화로운 타운하우스 스카이캐슬에서 살아가며 자식의 명문대 입학이라는 욕망에 휩싸인 '상위 0.1%' 집안의 아들과 딸이었다. 이후 각기 무대에서 활약한 이들은 지난해 '여신강림'으로 다시 만났다. 뒤이어 '화이트데이:부서진 결계'로 세 번째 호흡을 맞추게 됐다.

'화이트데이:부서진 결계'는 판타지 공포물로, 올해 발매 20주년을 맞은 국산 PC 패키지 공포게임 '화이트데이: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을 바탕으로 되마에 얽힌 이야기를 펼친다. 극중 강찬희는 늦은 밤 학교에서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악령으로부터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박유나는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겨내며 관객의 긴장감을 자아낸다.

이들은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벌써 키우고 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8월19일 티저 예고편을 공개해 8일 현재 유튜브상 18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판타지 공포물다운 오싹한 분위기로 시선을 끌며 '스카이캐슬'과 '여신강림'에 이어 또다시 10대의 불안을 연기해낸 강찬희와 박유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친다.

두 사람은 10일 오전 11시 영화 제작보고회를 열어 스크린에 나서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윤여수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해외 OTT 공룡' 상륙...국내 OTT 손잡나?

점유율 1위 넷플릭스와 2파전 예고 애플TV·프라임비디오 韓 진출 준비 웨이브·티빙·왓챠 등 협업 공감대



마블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시리즈와 디즈니의 '겨울왕국' 등 흥행 콘텐츠를 보유한 OTT 디즈니플러스가 11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다. 넷플릭스가 이끌어온 국내 OTT시장을 둘러싼 각 플랫폼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한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강세 속에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잇달아 한국에서 문을 연다.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플랫폼들도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저마다 제작비를 투자해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어서 OTT 시장의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 해외 '공룡 OTT' 들의 진격

현재 국내 OTT 시장점유율 1위는 넷플릭스이다. 애플리케이션 분석회사 와이즈앱리태일굿즈가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0세 이상 앱 사용자 중 910만여 명이 넷플릭스를 사용하고 있다. 2위 웨이브(319만 명)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8일 미국의 디즈니플러스는 11월12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의 유력한 대

항마로 꼽히는 디즈니플러스는 이미 해외에서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벌여왔다. 디즈니플러스는 마블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시리즈, 디즈니의 '겨울왕국', 픽사의 '토이스토리4' 등 탄탄한 팬덤을 구축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보유하고 있어 유료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애플의 애플TV플러스, 아마존의 프라임비디오 등도 한국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애플TV플러스는 연내 론칭 목표로 일찌감치 드라마를 제작 중이다. 이민기

·윤여정의 '파친코', 이선균의 '닥터 브레인' 등이다. 중국 OTT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이치이는 내년 초 방영할 tvN '별탈'에 일부 제작비를 투자해 이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보해온 위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국내 OTT '공동 제작 등 방안 논의'

OTT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상파·케이블 채널 등과는 차별화하는 자체 콘텐츠를 통해 가입자 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티빙

은 1월 예능 콘텐츠 '여고추리반'을 선보여 전년 대비 유료 가입자 수를 29.3%가량 늘렸다. 8일 웨이브 관계자도 "8월31일 공개한 드라마 '유 레이스 미 업'이 신규 가입 견인 점유율 15%를 기록하는 등 가입자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웨이브는 2025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오리지널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주지훈·박성용 주연 '젠틀맨', 김희애·조진웅이 나서는 '데드맨' 등을 제작 중이다. 티빙도 이준익 감독이 연출해 신하균·한지민이 주연하는 드라마 '은디' 등을 제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카카오투V는 1년 동안 '전정규' '독이나 할까' 등 총 53편의 오리지널 드라마와 능 콘텐츠를 내놨고, 쿠팡플레이는 4일 예능 콘텐츠 'SNL코리아'에 이어 연말 차승원·김수현 주연 드라마 '어느날'을 선보인다.

최근에는 협업 논의도 시작됐다. 황해정 티빙 콘텐츠사업국장은 7일 '국제방송영상마켓 2021'에서 "글로벌 OTT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플랫폼들이 협업에 대한 공감대를 쌓고 있다. 서로 협력해 콘텐츠를 내놓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코미디 영화가 대세...장르별 수익성 평균 103% 최고

영화진흥위 2019년 한국영화 분석

한국영화 수익률 10.93%로 흑자 제작비 50억~80억대가 40% 기록

한국영화가 2019년 10.93%의 수익률로 흑자를 기록했다. 순제작비 규모별로는 50~80억원 영화의 수익률이 평균 40.64%로 규모별, 코미디가 103.01%로 장르별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19년 "영화를 촬영하는 데 들어간 실제 투자금액"인 순제작비 30억원 이상 한국영화 45편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보고서를 8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19년 한국영화의 편당 평균 순제작비는 76억5000만



극한직업



엑시트

원, 홍보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는 총제작비 총제작비는 100억8000만원이었고,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는 45편 가운데 20편이었다. 수익률은 10.93%로, 2018년 적자(-4.77%)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순제작비 규모별로는 50~80억원 영화의 수익률이 40.6%로 최고치였다. 18편 가운데 9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2018년에 이어 평균 총이익이 144.8%나 늘어났

다. 반면 30~50억원(-19.3), 80~100억원(-33.70%), 150억원 이상(-21.34%) 규모 영화는 적자였다.

45편 가운데 범죄 10편, 드라마 9편, 코미디 8편 등 장르별 수익성 분석에서는 '극한직업', '엑시트' 등 코미디가 평균 103.01%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2015년 이후 흐름을 잇는 것이다. 코미디 장르의 편당 평균 순제작비는 55억8600만원으로, 액션·어

드벤처, 사극, 범죄, 공포·스릴러·드라마 등 9개 장르 가운데 세 번째로 적은 규모였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한국영화는 감염병 확산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한국영화는 지난해 -34.1%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9%의 관객이 줄어들면서 매출 규모가 79.8%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질' '싱크홀' '모가디슈'가 각각 100~300만 관객을 넘어서며 선전하며 영화계와 극장가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추석 시즌에도 '기적', '보이스', '영화의 거리'가 관객을 만난다. 영화계의 기대가 작지 않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내 몸에 선물하는 완벽한 편안함~ 청바지에 중독되다! 멋과 편안함을 동시에 청바지 1 + 1 49,800원



고무줄은 아니지만 고무줄 같은 편안함 뒷면질개선으로 힘업효과까지!

중년의 체형을 고려하여 밀워길이 적당하다. 착용감이 편안하고 활동성이 뛰어나며 워싱이나 장식이 과하지 않도록 제작되었다. 일자형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어떠한 체형에도 잘 어울리며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하기에 좋은 청바지이다. 패션 트렌드에 꼭 빠지지 않는 아이템인 청바지는 무난한 디자인으로 야외 활동시 평상복으로 즐겨 입을 수 있는 제품이다.

사이즈 30, 32, 34, 36, 38, 40 청바지 1+1 ₩4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센스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



약기모 집업 티셔츠로 쌀쌀한 날씨에 든든하게~ 기능성 기모 집업티셔츠 3종 39,800원



버건디 그레이 네이비 블랙

보온성·방풍성·실용성·패션성을 겸비한 기모 집업 티셔츠는 기온이 낮은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다. 보온성이 탁월한 약기모 안감 기술을 입힌 집업 티셔츠는 가을철 일상생활이나 등산·낚시·골프·사이클·스포츠 레저 활동시 적합한 제품으로 입는 순간부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온몸으로 느낄 것이다. 일상복 및 외출복으로 손색이 없으며 가을철 냉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준다. 100% 국내 원단으로 믿고 입을 수 있다.

사이즈 95, 100, 105, 110 기능성 기모 티셔츠 3종 ₩3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센스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카드결제 가능